

‘로미오와 줄리엣’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광주시립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

임기가 끝난 발레단 전임 예술감독이 추진한 작품 공연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가 발레단 단독 작품이 아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한 양상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지난해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을 준비중이었다. 독일에서 활동중인 안무가 하용순씨를 특별 초빙해 준비한 작품으로 4월7~8일 전당 극장 1에서 공연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작품 제작을 추진했던 신순주 예술감독이 지난 25일 임기가 끝나고 연임이 되지 않으면서 공연 여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발레단은 지난 12월 말부터 허씨를 초빙, ‘로미오와 줄리엣’을 준비해왔다. 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허씨는 선화예고, 모나코왕립발레학교 출신으로 프랑크푸르트발레단 등을 거쳐 안무가로 활동중이다. 허씨는 25일 가람 광주에 머물며 오디션을 진행하고, 광주시립발레단의 박경애와 보그단 플로피누, 발레리나 김주원과 윤전일을 주역으로 더블 캐스팅했다.

광주시립발레단, 4월 7~8일 문화전당서 공연 준비

문화예회관, 예술감독 임기 끝나 계약·책임 문제 재검토

전당측 “공연 무산 땀 시립예술단체와 작업에 부담”

내년 2월까지 미국, 독일, 일본 공연 일정이 잡힌 허씨는 오는 3월 15일부터 광주에 들어와 다시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예정이었다. 발레단 측은 일단 안무 등이 마무리된 상태로 예술감독이 없더라도 허씨가 들어오기 전까지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연습을 진행, 공연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연 소식은 광주문화예회관이 발행하는 소식지와 전당 1년 공연 라인업 등에 소개되는 등 홍보가 진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신 감독 임기가 끝나고 연임이 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발레단을 운영하는 광주문화예회관은 예술감독이 공석인 상황에서 2억원에 이르는 대작을 무대에 올려 자칫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 등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연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특히 전당이나 안무가 등과 아직까지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난감을 표하고 있으며 규정보다 많이 책정된 안무

비 문제 등 예산 부분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신감독이 후원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발레단을 떠난 상황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염려하고 있다.

회관측은 공연 출연진이 적은 데다 재임 시 예술감독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단원들이 대부분 이번 작품에 출연하지 않는 점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타 작품에 비해 출연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번 작품 출연진은 허 안무가가 오디션을 통해 모두 직접 캐스팅했다.

문화전당측은 곤란한 입장이다. 지난해 4월 발레단과 첫 협업 작업으로 ‘봄의 제전 G’를 무대에 올렸던 전당은 올해 ‘셰익스피어 시리즈’를 기획하고, 시립극단과는 ‘맥베스’를, 발레단과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계획했다. 이미 공연 홍보가 된 상태에서 티켓 오픈을 준비중인 상황이었다.

전당측은 연간 공연 라인업은 1년여 전부터 준비하는데다 유명 예술가들의 공연

일정 등을 감안, 구체적인 계약서 대신 구두 협의 등을 통해 미리 공연을 준비하는 게 관례라는 입장이다. 예산 배부 시기 등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3·4월 행사는 불가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전당 관계자는 “이미 서울 공연계에서 화제가 된 작품으로, 발레단이 특정 예술감독의 발레단이 아니라, 광주시의 발레단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며 “발레단 내부 문제로 공연이 중지될 경우 발레단 이미지를 흐릴까 안타깝고 이번 공연이 무산된다면 안좋은 선례를 남겨 전당이 시립단체와 작업하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공연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광주문화예회관장은 “전임 예술감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 절차와 예산 책정 등 행정적인 문제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실무진들의 행정적인 검토와 단원들의 공연 의사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레단은 당분간 단무주 대행체제로 운영되며 신임 예술감독은 공모, 청빙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중으로 4월이 넘어 서야 뻔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빛, 봄내음

전남도립국악단 4일 남도소리올림터서 ‘신춘음악회’

전남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오는 4일 오후 5시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신춘음악회 ‘봄빛, 봄내음’ (사진)을 펼친다.

이번 새봄맞이 기획공연은 봄을 소재로 한 음악들로 봄향기 가득한 국악관현악과 창작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로 꾸며진다.

첫 무대 설정과 협주곡 ‘소나기’는 봄 새싹을 깨우는 듯한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선율과 남도 풍물가락이 어우러지며 소금협주곡 ‘초소의 봄’은 국악단 상임단원 윤암현씨가 협연한다. 이어 고려가요 ‘청산별곡’, 창작가곡

‘산천초목’을 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곡 이수자이며 KBS 정가부분 국악대상 수상자인 강관순씨 협연으로 들려주며 어쿠스틱 앙상블 ‘재비’의 ‘재비썩(가아급)’을 관현악 편곡으로 만나본다. 마지막 곡으로는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중 3악장을 사당정산유수 사물놀이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토요공연 관람료는 성인 1만원, 대학생 및 단체 7000원, 학생 5000원,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다. 문의 전남도립국악단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예술아시장 3월 행사 ‘봄바람 따라온 별장’

‘간서치 책방’ ‘찾아가는 갤러리’ 첫 선

대인예술아시장 ‘별장’이 ‘봄바람 따라온 별장’을 주제로 3월(4·11·18·25일) 행사를 연다.

이달 별장에서는 인문예술시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간서치 책방’과 빛고를 아우라의 ‘찾아가는 갤러리’가 첫 선을 보인다. ‘간서치’는 독서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책 바보’를 의미하며,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자신에게 붙인 말이다.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운영하며 누구나 북 셀러로 참여할 수 있다. 또 밤 8시30분부터는 책페(경매사)가 진행하는 헌책 경매행사도 열린다. ‘찾아가는 갤러리’는 트럭을 개조한 달리는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미술작품 현장전시회로, 큐레이터의 작품해설이 곁들여진다. 18일 한차례 운영된 뒤 4월부터는 월 2회 개최된다.

거리공연 ‘유별난 예술극장’에서는 4일 영텍스 밴드의 ‘부담 없는 재즈 공연’과 더 블루의 감미로운 색소폰 선율을 만날 수 있다. 포크 가수 하인석은 4·18일 오후 6시 시장 동문입구에서 버스킹을 진행하고 11일에는 NS 듀오의 재즈공연이 펼쳐진다. 18일에는 광주시립국악단의 길놀이와 국극무대에 이어 광산대학교 학생밴드팀 PP와 밴드다찌가 재즈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25일에는 앙리머스와 러브클래식이 나서 재즈와 가요, 성악의 어울림 무대를 선사한다. 움서감서 체험장에서는 핸드 프린팅과 포스트잇 붙이기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한편, 셀러 스튜디오 입주자와 아트컬렉션 샵은 14일과 18일 각각 개장하며 시장 웰컴센터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좌 ‘아카이브 꿈굴’은 ‘라강의 루브르’를 교재로 읽기강독과 평론발제를 11·18일 진행한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간서치 책방 경매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문화부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3년 연속 선정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광주시 남구 사직동)가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선정됐다.

또 사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국비 포함 11억원을 확보, 지역 음악산업 활성화에 힘쓴다.

음악센터는 3월 중순 다양한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와 사업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7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입장이 매진되는 등 호응을 받았던 국제 음악축제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올해에도 9월 2~3일 시민들을 찾아온다.

진흥원은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음악 전문 시설로 재정비해 2016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밴드 ‘아니’, ‘빛과소음’, ‘다이얼라잇’ 등을 배출한 전국 유일 ‘뮤지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비롯해 현재까지 29개음반(190개 음원)을 제작하고 57회 공연을 펼쳤다. 문의 062-654-362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명자의 가야금병창 제석굿

4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씻김굿과 강강술래를 문명자 명인의 가야금병창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4일 토요일 오후3시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대표 문명자)를 초청해 ‘문명자의 가야금병창 제석굿’ (사진) 공연을 선보인다.

씻김굿은 민간신앙의 하나로 주로 제사의식 공연으로 진행되며, 강강술래는 민속놀이로 주로 전통무용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공연. 이번 공연은 씻김굿과 강강술래를 가야금병창으로 선보이는 색다른 무대다.

공연은 먼저, 터를 밝아 한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터울림 마당으로 초가방석, 손긄쳐 올리기, 제석굿으로 구성된 ‘씻김굿’을 선보인다. 또한 ‘적벽가’ 중 적벽대전 대목이 이어지며, ‘강강술래’를 문명자 명인의 가야금병창과 전통무용으로 마무리 한다.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는 2002년 설립, 매년 대한민국가야금병창대축제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공연과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문명자, 송은영, 강세희, 김해인, 윤하나, 김수빈, 황아림, 노효진, 정아령, 정다솔, 노채연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